

외요세평

김명화

작가·교육학 박사



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사람이 되길 바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한 표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생각에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일이 기다려진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은 한쪽에 치우친 정치보다는 상호 협력, 배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은 자신과 정당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이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국민의 역사적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두 번의 대통령을 통해 뼈아픈 경험을 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다. 이솝 우화는 천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며 가진 자와 권력자를 비판한다. 이솝은 노예였다는 설이 있다. 주인을 따라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우화를 만들었는데 천년이 넘는 이야기가 지금도 회자되는 것을 보면 이야기의 힘은 위대하다. 이솝 동화를 통해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이솝 이야기 여우와 두루미는 상호 협력의 정치다. 우화를 보면, 어느 날 여우는 두루미를 초청한다. 그런데 음식을 대접하는 그릇을 보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 화가 난 두루미가 여우를 초청했다. 두루미는 여우가 했던 대로 갇아준 것. 여우와 두루미의 관계를 보면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위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복수뿐이다. 국가 권력자와 당 대표는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기보다는 상호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 21대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가 무엇인가를 고민하여 상대방을 배려하고 설득하는 상호협치의 정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두 번째, 대통령은 국민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솝 우화 양치기 소년 동화는 신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이야기다. 어느 마을에 양치기 소년은 양을 지키는 것이 지루해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쳤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었다. 그것은 양치기 소년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번 세 번의 거짓말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이 신뢰하지 않게 된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신뢰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언어는 신중해야 하며 난발하는 공약보다는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을 통한 믿음과 신뢰의 정치가 필요하다.

상호협치 정치가 필요하다

세 번째 자기합리화다. 여우와 신피도 우화는 여우가 길을 가다가 포도를 발견한다. 여우는 포도를 따서 먹고 싶었지만, 포도가 손에 닿지 않아 결국 포기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저 포도는 분명 맛이 없어, 먹지 않길 잘했어.”라고 자기합리화를 한 것이다. 자기합리화는 스스로에 대한 위로도 되지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오히려 독이 된다. 여우와 신피도 우화를 통해 대통령은 다양한 채널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 국민도 한 표의 소중함에 대해서 절실하게 생각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닥치자 정책과 공약보다는 비난과 설전이 난무하는 선거상황을 보면 답답하지만 앞으로 당선되는 21대 대통령은 협력, 배려, 신뢰가 바탕이 되는 훌륭한 정책을 펼쳐 역사에 남을 위대한 대통령이 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란다.

사설

오늘 21대 대선, 투표가 민주주의다

오늘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지난 29, 30일에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도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이 모두 50%가 넘는 투표율을 보이고 전국적으로도 역대 두 번째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오늘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특히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됨으로써 실시되는 선거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두 번째다. 이는 진영이나 여야를 떠나 우리 헌정사에서 대단히 부끄럽고 불행한 일이다. 다시는 이런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거의 6개월 동안 우리 사회는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 국격은 한없이 추락했고, 경제는 깊은 늪에 빠졌다. 국민이 겪은 불안과 고통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도 그 고통과 혼란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이러한 혼란을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국민이 행사하는 한표 한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투표가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완성이다. 불의의 시대를 끝내고 진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법은 유권자의 투표가 유일하다. 군부독재의 총칼이나 불법적인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없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더욱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도 없다.

그동안 우리는 이승만 독재 정권이 4·19로 무너지고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의 종말을 보아왔다. 불과 6개월 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 헌정사에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을 똑똑히 목도했다. 윤 전 대통령의 종말 역시 앞선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법적인 책임은 물론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시작이 이번 선거다. 그 첫 심판이 투표다. 반드시 투표하고 누가 당선되든 반드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이 저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한 표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 후보 중 가장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다. 유권자들은 이미 이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을 알고 있고, 이들이 내세운 공약도 살펴봤다. 세 번의 TV토론에서 자질과 능력, 인성과 도덕성의 단면도 보았다. 지금은 대부분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을 터다. 투표소로 가서 마음의 결정을 기표 용지에 꼭 눌러 표시하는 일만 남았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번 선거가 불법·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혼란을 끝내고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투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반드시 투표하자. 투표가 민주주의다.

기고

이성일

사)남북민간교류협회 광주전남지부장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에게

지속고, 청년은 월세 낼 돈이 없어 고시원에 산다. 자산 상위 10%가 금융자산의 80%를 독식하고, 노동자는 대출과 알바로 생계를 꾸린다. 구조적 불평등은 더는 통계가 아니라 일상이다.

셋째 악한 자가 잘되고, 선한 자는 고통받는다. 사기꾼은 방송에 나오고, 탈세범은 자선가로 불린다. 반면, 성실하게 살던 이는 정리해고되고, 양심껏 일한 이는 계약갱신을 거부당한다. 법보다 ‘연줄’이, 진실보다 ‘전과’가 더 유리한 세상. 누가 이걸 정당이라 부를 수 있나.

넷째 폭력과 전쟁이 멈추지 않는다. 전쟁은 끝나지 않고, 무고한 민간인이 죽어간다. 정부는 ‘평화’를 외치면서도 무기수출 10위권 국가에 올라 있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가 아닌, 국익 계산기만 두드리는 정치에 국민의 정신은 지쳐가고 있다.

다섯째 무능한 자가 권력을 잡고, 유능한 자는 밀려난다. 비선, 낙하산, 선거캠프 출신들이 공공기관을 점령하고, 실력 있는 전문가는 경력만 쌓이다 퇴장한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은 있었지만, 정말 사람을 먼저 생각한 정권이 있었던가.

여섯째 법은 강자에겐 관대하고, 약자에겐 잔혹하다. 땅 투기한 고위 공직자는 불기소되고, 전기요금 몇 달 못 낸 노인은 단전당한다. 재벌 3세는 마약을 해도 집행유예, 생계형 범죄자는 실형을 선고받는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이제 교과서에서만 진리다.

일곱째 노동의 대가가 공정하지 않다. 하루 12시간 배달해도 한 달 200만 원. 땀은 늘 고생

값일 뿐이다. 건물주는 땅값이 오르면 앉아서 수천만 원을 벌고, 비정규직은 같은 일에도 절반만 받는다. 노동이 존중받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여덟번째 생명이 경시되고 있다. 자살, 낙태, 안락사, 묻지마 살인까지. 생명에 대한 경외심은 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의 대응은 늘 사후적이고 수동적이다.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말이 현실에선 작동하지 않는다.

아홉번째 환경을 파괴하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기후 위기는 심각해지고 있지만, 기업은 배출권 장사에 몰두한다. 환경부는 전시용 캠페인에 집중하고, 정책은 늘 다음 정권으로 미뤄진다. 지금의 무책임이 미래 세대의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다.

열번째 진리는 무너지고, 거짓이 진리처럼 여겨진다. 가짜뉴스가 여론을 장악하고, 정치인은 이를 활용해 표를 얻는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고립되고, 선동은 박수받는다. 이제는 누가 거짓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교묘하게 속이는가의 싸움이다.

우리는 더 이상 ‘말뿐인 약속’에는 관심이 없다. 대통령 후보님들이여, 당신들은 때론 새로운 비전을 말하지만, 국민은 늘 같은 좌절을 겪는다. 지금 필요한 건 ‘미래 구상’이 아니라 ‘현실 진단’이다.

이 10가지 부조리를 외면한 채 공정과 정의의를 말하지 말라. 이 땅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라면 이 질문에 진성있게 준비된 답을 말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는가?

2025년 봄, 한 명의 시민이자 유권자로부터.

안타까운 지역병원 전공의 추가모집 실패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추가모집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전공의 지원율이 저조하자 마감 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복귀를 유도했으나 기대했던 대규모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 의료계 인력난과 전문의 배출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전남대병원은 애초 지난달 27일까지였던 인턴 모집 기일을 두 차례 연장해 30일까지 미루고 레지던트 모집도 27일에서 29일까지로 마감 시한을 연장하며 추가모집에 나섰으나 지원자는 극소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병원도 인턴 레지던트 추가모집 마감을 28일에서 29일까지 연장하며 복귀를 기다렸지만, 지원자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추가모집은 정부가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에게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통상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는 정기 모집과 별개로 이뤄졌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서 시작된 의료 공백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처럼 추가모집에서 전공의 복귀가 미미한 이유 중의 하나로 새로 들어설 정부의 의료 정책을 보고 판단할 것이란 분석이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의료계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새 정부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끝내고 국민 통합을 최우선에 놓고 각종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 만큼 정부와 의료계는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새 정부와 의료계 종사자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소명의식으로 하루빨리 의료공백을 끝내기 바란다.

사진 속 세상



“내가 미8군 최고분대”

2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미8군 최고분대 선발대회에서 주한미군 장병이 장애물을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                                 |                |                       |                              |          |                   |
|---------------------------------|----------------|-----------------------|------------------------------|----------|-------------------|
| 1989년 6월 29일 창간                 |                |                       |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          |                   |
| 회장 박철홍                          |                |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경남      |                              | 주필 이종주   |                   |
| jndn.com                        |                | 대표전화 062) 720-1000    |                              | 편집국장 박간재 |                   |
|                                 |                |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                              |          |                   |
| 정치부                             | (062) 720-1060 | 문화체육부                 | (062) 720-1071               | 사업국      | (062) 720-1011    |
| 경제부                             | (062) 720-1067 | 사진부                   | (062) 720-1040               | 광고국      | (062) 720-1016~17 |
| 사회부                             | (062) 720-1050 | 편집부                   | (062) 720-1073               | 관리국      | (062) 720-1012    |
| 사회2부                            | (062) 720-1043 |                       |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                       | 기사제보 jndnnews@naver.com      |          |                   |
|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                |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직한 신문 공정한 신문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jndnnews@naver.com

